



보도자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www.unglobalcompact.kr)
홍보담당 이은경(02-749-2150, 010-8585-0215, ungckorea@gmail.com)

“B4E 2010 기업들, 유엔글로벌콤팩트 활동 신규가입”

일시: 2010.4.23(금) 7:45-8:45

장소: 코엑스 그랜드 볼룸 101호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대상: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및 다국적 기업 대표, 임원
및 실무진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4월 23일 오전 7시 45분부터 8시 45분까지, 코엑스 그랜드 볼룸 101호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및 한국 주재 다국적 기업 대표, 임원 및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회를 개최함. 금번 조찬회는 B4E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 정상회의 중 한 세션으로 진행됨.
- ‘2010 B4E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 정상회의(Business for Environment)’는 지난 12월 코펜하겐 제 15차 유엔 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 이후 첫번째 개최되는 세계적 규모의 기업 환경회의로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엔 환경계획, WWF, Global Initiatives 공동 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림. 싱가포르, 파리 등지에서 개최된바 있는 B4E는 올해로 4회차로 전세계 경제, 정치, 언론, 시민사회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녹색경제에 대해 논의하고, 기업 중심의 실천을 촉구하기 위한 연례 행사임.
- 금번 조찬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승한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 대표인 Georg Kell 사무국장, Water Mandate 담당 부국장 Gavin Power, 환경담당 Lila Karbassi가 축사 및 발표를 함. 또한 UNGC 신규 가입 및 우리 협회 회원 가입식, Caring for Climate와 CEO Water Mandate의 기업 가입서명식을 가짐.
- 올해부터 한국협회는 한국 주재 다국적기업에 협회 활동을 개방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UNGC 본부에 가입된 Intel社의 협회 회원가입도 다국적 기업이 로컬 차원에서 CSR 확산에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또한 UNGC에 현대건설, 미래에셋이 참여하게 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사와 자산관리 대표 증권사가 UNGC에 참여함으로써 UNGC 가치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후를 위한 배려’ (Caring for Climate)와 ‘최고경영자 수자원관리 책무’(CEO Water Mandate) 등과 같은 기후변화 관련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업들이 친환경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도움과 네트워킹을 제공하고 있음.
- “기후에 대한 배려(Caring for Climate)” 이니셔티브는 2007년 글로벌콤팩트 정상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에 의해 시작됨. 자발적이고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로서, 기업 공동체가 기후위기를 경감시키는 동시에 회사의 가치창조를 견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환경계획,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에 의해 공동 개발됨. 2010년 1월 까지 “기후에 대한 배려” 성명서에 서명한 기업의 수는 세계 48개국의 370개 사임. 이 중 255개사는 대기업이며, 40% 이상의 기업은 신흥경제국 및 개발도상국에 본부를 두고 있음. 금번 조찬회에서 [홈플러스, SKT, LG 전자,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웅진코웨이, 기업은행](#)이 Caring for Climate에 참여함.
- “최고경영자 수자원관리 책무 (CEO Water Mandate)”는 세계적인 물 위기에 대응하고자 기업들의 협력을 요청함. Water Mandate에 가입한 기업들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비전과 새천년개발목표 (MDG)에 적합한 방향으로 기업의 수자원을 관리할 자발적인 책무를 지게됨. 현재 미국 코카콜라, 네슬레, 유니레버, 프랑스 수에즈 등 세계 우수 기업들이 물 위기를 해결하려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비전에 공감하여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임. CEO Water Mandate의 가입과 그에 따른 혜택은 기업들이 친환경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금번 조찬회에서 [대구은행, 웅진코웨이](#)가 한국 기업 최초로 참여함.
- 유엔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는 2007년 9월 17 일 창립총회를 한 후,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고, 체계적인 조직 및 투명한 운영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네트워크가 되었음. 현재는 177개 기업 및 단체가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로 가입하여 활발하게 참여하며, 기업사회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국협회는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4번째로 큰 네트워크가 되었음.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2년 반의 시간동안, 회원사들에게 유엔글로벌콤팩트의 4대 이슈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주제와 유엔개발목표 (MDGs) 등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세계적 동향을 알리고, 기업과 사회의 인식을



2010.4.21

높이며 지속가능보고서(COP) 작성을 돕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음. 또한 정부 및 경제, 시민 단체 관계자들과의 정기적인 운영위원회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로써 국내 기업사회책임(CSR) 무브먼트의 활성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올해는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창립 10주년을 맞는 해로서, 본부 및 세계네트워 크 차원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음. 6월 23-25일에는 3년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의장으로 하여 개최되는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회의가 뉴욕에서 개최됨. “Building a New Era of Sustainability”라는 주제 아래 진행될 이번 회의에는 전세계의 비즈니스, 정부, 학계, 시민단체 영역의 1500명의 오피니언 리더가 초청되어, UNGC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시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모델을 이끌어내는 기회가 될 것임. 우리 기업 대표들 역시 동회의에 상당수 참여할 예정임.

- 한국 사회 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주류가치가 될 때까지 한국협회는 계속 노력할 것이며, 금번 B4E 회의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조찬회 및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함.

* 첨부

1. 조찬회 순서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소개



* 조찬회 순서

- 행사명: UN Global Compact Breakfast
-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일시: 2010년 4월 23일 (금) 07:45~08:45
- 장소: 코엑스 그랜드 볼룸 #101
- 프로그램
 - ◆ 07:30 ~ 07:45 등록 접수
 - ◆ 07:45 ~ 07:5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승한 회장 환영사
 - ◆ 07:50 ~ 07:55 축사 UNGC Georg Kell 사무국장
 - ◆ 07:55 ~ 08:05 UN Global Compact, Caring for Climate(C4C)
및 Water Mandate 이니셔티브 소개
 - UNGC Gavin Powers 부국장
 - Lila KARBASSI 환경 담당관
 - ◆ 08:05~08:15 UNGC 가입 증서 전달식 및 참여 서명식
 - UNGC 한국협회 가입: 인텔, 제닉, 현대건설
 - UNGC 본부가입: 현대건설, 미래에셋
 - C4C 참여 서명식:
홈플러스, SKT, LG 전자,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웅진코웨이, 기업은행
 - Water Mandate 참여 서명식:
대구은행, 웅진코웨이
 - ◆ 08:15~08:45 조찬

* 유엔글로벌콤팩트 소개

2000년 UN본부에서 창설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현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주요 아젠다로서, 기업들이 UN기구, 정부, 노동,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10대 원칙을 실현하는데에 초점을 두고 있음. 유엔은 이와 같이 세계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하여 세계화의 여러 문제에 국제 사회가 공



동대처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음.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시민(corporate citizenship) 이니셔티브로서, 6,700여 회원이 가입(그 중 5,200여개 기업) 및 80여개의 국별 네트워크가 활동하고 있음. 한국에서도 177개 회원이 참여중이며, 2007년 9월 17일에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설립되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133개의 기업 및 단체가 한국협회에 가입하여 뜻을 같이하고 있음. 한국협회는 한국 사회 내 지속 가능하고, 책임있는 기업경영 및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